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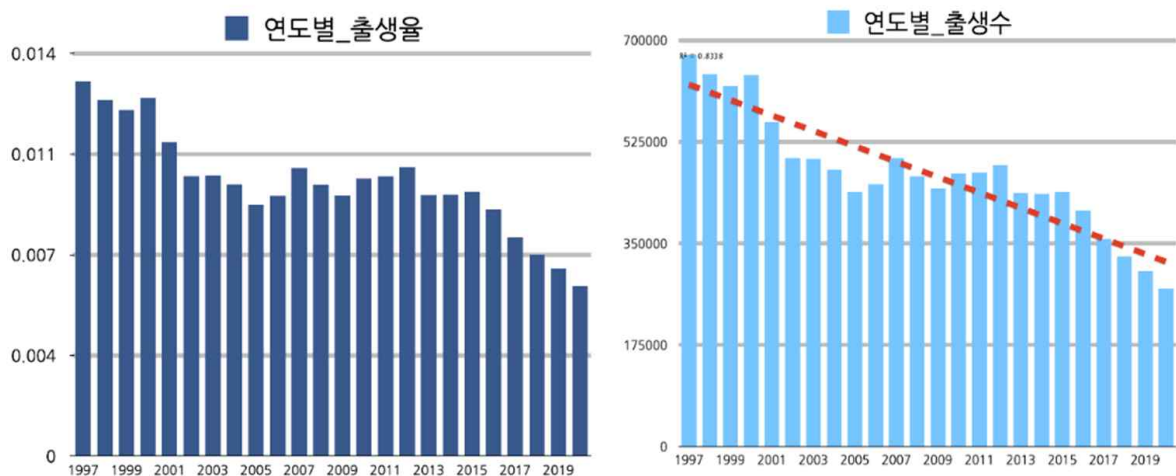
우리 아이 가질까?

-저출산 문제 원인분석 및 입체적 해결방안 제언-

1. 주제 선정 및 배경

저출산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거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통계 데이터 센터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생수와 출생률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띄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5년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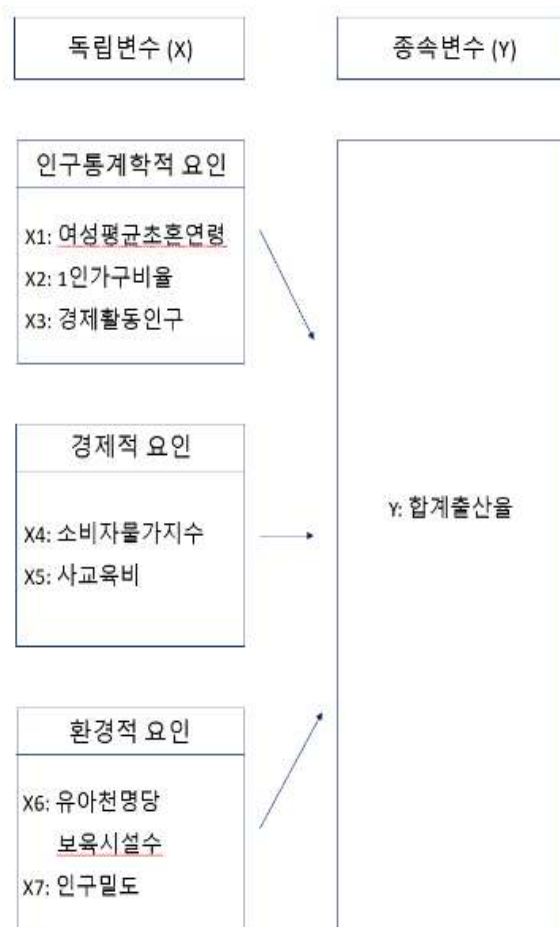
<그림1 통계데이터센터 연도별 출생률 및 연도별 출생수 시각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1) 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저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2) 약 2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타개한 해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제언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데이터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데이터 사용 범위는 2015년~2020년,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R을 통해 회귀분석에 용이한



<그림2 회귀분석 변수 설정>

형태로 전처리를 했다. 인구밀도 전처리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데이터가 결측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전국의 평균값으로 대체해 결측치를 처리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데이터 전처리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2015년, 2016년 NaN 값을 2017년~2020년 증가율의 평균을 활용해 예측값으로 대체했다. 이후, 연도별 행정구역별 데이터프레임을 만들었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 대분류 요인으로 나눠 변수 설정을 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1) 여성 평균 초혼 연령 2) 1인 가구 비율 3) 경제활동인구. 경제적 요인으로 1) 소비자물가 2) 사교육비. 환경적 요인으로 1)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2) 인구밀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해주고, 분석했다.

다음은 독립변수 선정 기준이다. 1) 여성 평균 초혼 연령: 국가적 노산 문제가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2)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의 증가가 합계출산율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3) 소비자물가지수, 4) 사교육비: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5) 보육 시설 수: 정부가 시행해온 국가 공립 보육 시설 확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했다. 6) 인구밀도: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 심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했다. 7) 경제활동인구: 인구밀도와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했다.

회귀분석은 R을 통해 진행했다. 지정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및 변수 선택 과정을 거쳐 Final model과 분야별 model을 선정했고, 합계출산율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해 정책적 제언에 활용하고자 한다.

Full model에 대한 식을 세워 변수가 Y와 유의성을 갖는지 판단했다.

<그림3 회귀분석 Full model 설정>

$$Y = \beta_0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beta_4X_4 + \beta_5X_5 + \beta_6X_6 + \beta_7X_7$$

<그림4 Full model에 대한 유의성 판단>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10.991261880	1.597287565	6.881	0.000000000655 ***
X1	-0.115450342	0.055201406	-2.091	0.039186 *
X2	0.012617984	0.006469755	1.950	0.054119 .
X3	-0.000003190	0.000010939	-0.292	0.771231
X4	-0.062634232	0.011939336	-5.246	0.000000956815 ***
X5	0.000242681	0.000433639	0.560	0.577057
X6	-0.038424174	0.008306461	-4.626	0.000011905883 ***
X7	-0.000030587	0.000008405	-3.639	0.000447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0.1287 on 94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134, Adjusted R-squared: 0.6921				
F-statistic: 33.43 on 7 and 94 DF, p-value: < 0.00000000000000022				

그림 4와 같이 X3과 X5 변수의 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두 개의 변수를 제거한 X1, X2, X4, X6, X7의 변수만 활용하여 Reduced model을 설정했다. Reduced model은 다중공선성을 띄지 않았다. 따라서 Reduced model을 Final model로 정했다. 회귀계수를 표준화 후, Y와 X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고자 한다.

<그림5 대분류 요인 별 표준화 회귀 모델>

```
model_std123 <- lm(Y_std ~ X1_std+ X2_std+X3_std)
model_std45 <- lm(Y_std ~ X4_std + X5_std)
model_std67 <- lm(Y_std ~ X6_std + X7_std)
```

추가적으로, 세 가지 대분류 요인들에 관한 model들도 각각 세우고,

표준화 회귀분석을 통해 각 대분류 요인에 포함되는 변수들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를 도출해 내고자 했다.

<그림6 Final model p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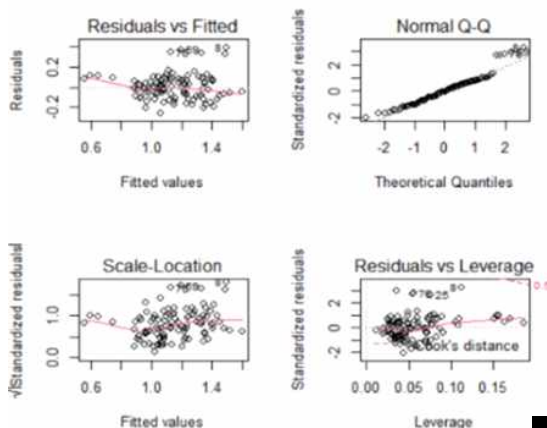


그림 6은 Final model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plot이다. 잔차가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보아 등분산성을 만족하고, 또한 빨간 선이 수평에 가까운 것을 보아 선형성을 띤다. 정규성 또한 만족한다.

<그림7 Final model에 대한 유의한 판단>

그림 7은 X3과 X5를 제외한 Final model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R-squared 값 및 유의성 모두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 t)
(Intercept)	10.335911454	1.009633106	10.237	< 0.0000000000000002 ***
X1	-0.101334395	0.046996892	-2.156	0.0336 *
X2	0.011872766	0.005308545	2.237	0.0276 *
X4	-0.059386527	0.010362460	-5.731	0.000000115 ***
X6	-0.038687212	0.007265563	-5.325	0.000000664 ***
X7	-0.000027545	0.000005185	-5.312	0.000000701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Residual standard error: 0.1276 on 96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124, Adjusted R-squared: 0.6974				
F-statistic: 47.56 on 5 and 96 DF, p-value: < 0.00000000000000022				

2-1) Final model에 대한 결과

표준화 회귀를 통해 분석을 마무리한 결과,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림8 Final model 식>

$$Y = -0.26X_1 + 0.15X_2 - 0.49X_4 - 0.45X_6 - 0.45X_7 + 0.0$$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0.49로 출산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보육 시설 수가 적을수록,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이 감소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한계점에서 자세히 말하고자 한다.

2-2) 대분류 요인 별 model에 대한 결과

1) 인구통계학적 요인

<그림9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표준화 회귀 model>

```
Call:
lm(formula = Y_std ~ X1_std + X2_std + X3_std)

Coefficients:
(Intercept)      X1_std      X2_std      X3_std
-5.218e-17    -5.383e-01    -2.466e-01    -2.384e-01
```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이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 가구 비율, 인구밀도가 뒤를 이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만 분석을 진행했을 때, 1인 가구 비율이 합계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2) 경제적 요인

<그림10 경제적 요인의 표준화 회귀 model>

```
Call:
lm(formula = Y_std ~ X4_std + X5_std)

Coefficients:
(Intercept)      X4_std      X5_std
 5.116e-17    -4.173e-01    -5.179e-01
```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다음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뒤를 이었다.

3) 환경적 요인

<그림11 환경적 요인의 표준화 회귀 model>

```
Call:
lm(formula = Y_std ~ X6_std + X7_std)

Coefficients:
(Intercept)      X6_std      X7_std
 2.987e-17    -3.821e-01    -5.631e-01
```

인구밀도가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수가 다음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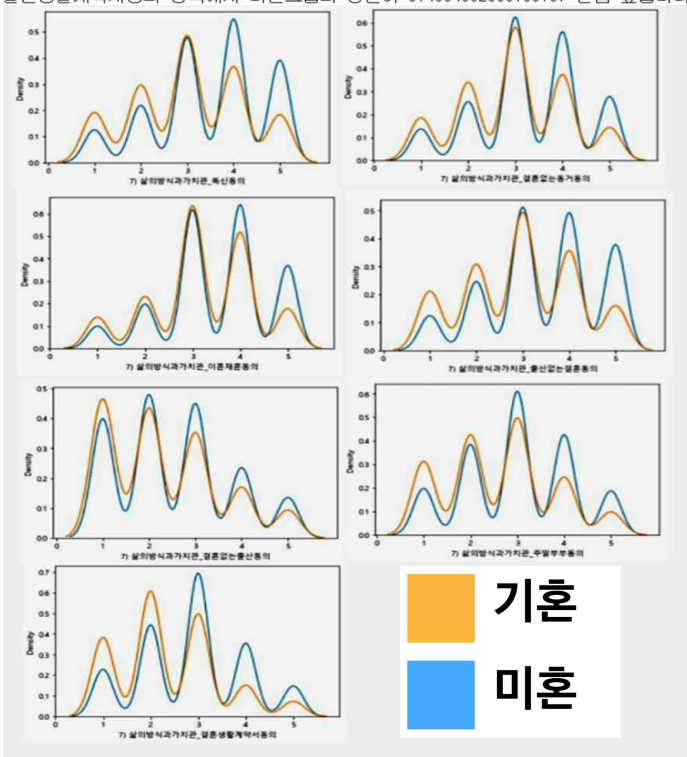
두 번째 분석으로는 결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분석하고자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했다. 가족 실태 조사 데이터를 총 3가지 관점에서 성격이 반대인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집단 간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고,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요소들을 뽑아냈다. 설문조사의 답은 1,2,3,4,5로 이루어져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1) 미혼 vs 기혼

- 18~39세의 사람들을 미혼집단과 기혼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

<그림12 삶의 방식과 가치관>

독신동의 항목에서 미혼그룹의 평균이 0.4534203481977963 만큼 높습니다.
 일혼없는동거동의 항목에서 미혼그룹의 평균이 0.34876277036514436 만큼 높습니다.
 이혼재혼동의 항목에서 미혼그룹의 평균이 0.29734888257143455 만큼 높습니다.
 산없는결혼동의 항목에서 미혼그룹의 평균이 0.4664075588111194 만큼 높습니다.
 산있는결혼동의 항목에서 미혼그룹의 평균이 0.2111489697246376 만큼 높습니다.
 주말부부의 항목에서 미혼그룹의 평균이 0.39672788141630866 만큼 높습니다.
 결혼생활계약서의 항목에서 미혼그룹의 평균이 0.4934052693103137 만큼 높습니다.



미혼 집단의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 출산 없는 결혼, 결혼 없는 동거, 이혼, 재혼, 결혼 없는 출산, 주말부부, 결혼생활 계약서에 더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혼 집단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장받기 원하고 결혼이라는 계약에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혼 집단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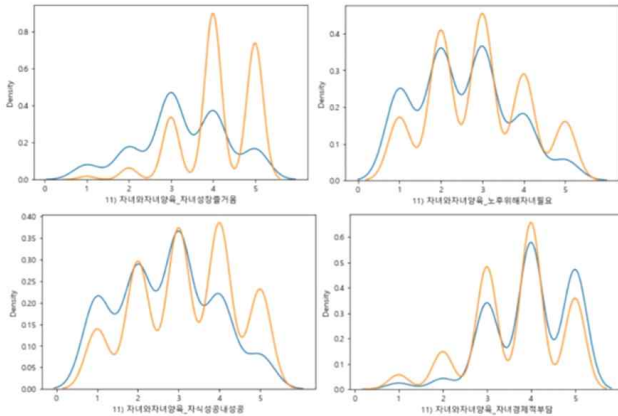
2) 자녀O vs 자녀X

- 18~39세의 기혼집단을 자녀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

<그림13 자녀와 자녀양육>

자녀성장즐거움 항목에서 자녀O 그룹의 평균이 0.8165412178730143 만큼 높습니다.
노후위해자녀필요 항목에서 자녀O 그룹의 평균이 0.37342003291548664 만큼 높습니다.
자식성공내성증 항목에서 자녀O 그룹의 평균이 0.48430348648046184 만큼 높습니다.
자녀경제적부담 항목에서 자녀X 그룹의 평균이 0.3288133824694204 만큼 높습니다.

자녀 O
자녀 X



자녀가 있는 집단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항목에 대부분이 강한 긍정을 보였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항목에도 다수가 긍정했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항목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단의 분포와 자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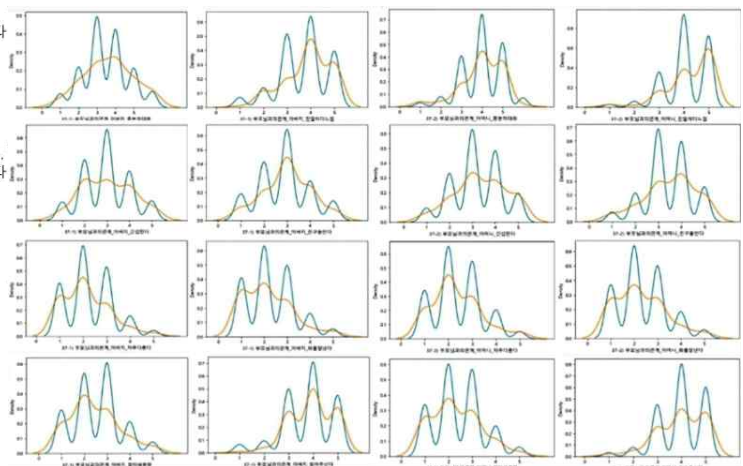
있는 집단의 분포가 차이가 났다. <자녀와 자녀 양육> 주제에서는 자녀로부터 오는 행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녀생각O vs 자녀생각X

- 만 15세~30세의 사람들을 자녀 생각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 고등학생인 만 15세,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인 31.1세 사이의 사람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그림14 부모님과의 관계>

충분히 대화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16217504951046413 만큼 높습니다.
친밀하다느낌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21388911704312097 만큼 높습니다.
간섭한다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05398767967145801 만큼 높습니다.
친구들안다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14065708418891187 만큼 높습니다.
자주다룬다 항목에서 X 그룹의 평균이 0.1686233675564648 만큼 높습니다.
화를잘낸다 항목에서 X 그룹의 평균이 0.16802874743326468 만큼 높습니다.
잘이해못함 항목에서 X 그룹의 평균이 0.1236550308008213 만큼 높습니다.
믿어주신다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17470636550307983 만큼 높습니다.
충분히 대화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025936870242557752 만큼 높습니다.
친밀하다느낌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19307248942946664 만큼 높습니다.
간섭한다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15132301566018524 만큼 높습니다.
친구들안다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08895411415073928 만큼 높습니다.
자주다룬다 항목에서 X 그룹의 평균이 0.07741561022559029 만큼 높습니다.
화를잘낸다 항목에서 X 그룹의 평균이 0.09554806975266228 만큼 높습니다.
잘이해못함 항목에서 X 그룹의 평균이 0.128503153710799 만큼 높습니다.
믿어주신다 항목에서 O 그룹의 평균이 0.01987003111465402 만큼 높습니다.



“충분히 대화”, “친밀하다 느낌”, “나의 친구들을 안다”, “나를 믿어주신다” 항목들은 자녀 생각이 있는 집단이 더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간섭

한다”, “자주 다룬다”,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함”, “나에게 화를 잘 냄” 항목들은 자녀 생각이 없는 집단에게서 더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자녀의 가정환경이 자녀의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생각이 있는 집단에게서 부모님과 관계가 더 원만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3. 해외 사례 조사 분석

저출산 상황을 비교적 훌륭하게 타개한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유럽의 선진국들 가운데, 대한민국과 비슷한 저출산의 상황에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국가에는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이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2.73명에서 1993년 1.6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힘입어 199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¹⁾

“스웨덴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 2.4명에 달했던 스웨덴 출산율은 1969년부터 2.0명 아래로 떨어졌고, 1999년 1.5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년간 1.9명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국가의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고자 한다.

1) 프랑스

프랑스는 CAF 라는 가족수당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해당 기관을 통해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직접적인 가족 지원을 실천한다.

-첫 번째 수당: 출산 또는 입양 수당(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두 번째 종류: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세 번째 유형: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네 번째 유형: 자녀교육 분담수당(PreParE,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1) 이문숙.(2016).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6(1),558-567.

2)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477>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 2018-11-10 21:45

프랑스는 위 네 가지 유형의 수당 가운데의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수당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다.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국공립 보육 시설의 높은 활용도 및 접근성이 있다.

2)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이 활발하다. 스웨덴에서는 최대 480일간의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부모가 각각 60일간의 필수적인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급여의 경우,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 대체수준으로 높였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또한 마련되어 있다. ‘스피드 프리미엄’이라는 정책은 첫 자녀를 낳은 지 30개월 이내에 둘째를 낳을 경우, 둘째를 낳는 시점의 급여가 첫째를 낳을 때의 급여보다 낮더라도 첫째를 낳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스피드 프리미엄을 통하여 두 번째 자녀의 스웨덴은 추가 출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스웨덴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산이 자유로워 2014년 현재 혼외출생으로 인한 출산이 전체 출산의 54.6%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가족의 유형과 상관없이 자녀가 있다면 보편적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³⁾

3) 대한민국 현황 비교

두 국가들에 비교하여 볼 때 대한민국이 가지는 눈에 띄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총괄과가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응한다. 이는 프랑스의 CAF가 가지는 기관의 행정력보다 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스웨덴 모두의 국공립 보육 시설의 비율은 80%를 웃도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국공립 보육 시설 비율은 지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4%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6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정책적 제언

4-1) 다중선행회귀분석 결과를 통한 현 정부 정책 분석

Final model, 대분류 요인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합계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떤 것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인가에 대한 답이

3) 양정선.(2017).[외국정책사례] 한국의 저출산 특수성과 스웨덴의 가족 정책.월간 공공정책,143(),70-73.

었다.

1) 경제적 요인:

Final model 결과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대변하는 소비자물가지수(X4, 약 -0.49)가 영향력이 가장 컸다. 경제적 요인만을 둔 회귀 모델에서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사교육비(X5, 약 -0.58)였다.

현 정부는 합계출산율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하여 경각하며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 16일,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출산, 양육과 관련한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있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현금 투입도 고려했다.⁴⁾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의 경우, 제대로 된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며, “윤 당선자가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해서만 거듭 강조할 뿐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 부재하고, 최근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이를 줄이기 위한 고민도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⁵⁾

2) 인구통계학적 요인:

Final model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컸던 변수는 인구밀도 (X7, 약 -0.45)였다. 이는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청년 인구의 54%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그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아이를 낳고 대를 이으려는 재생산 본능보다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본능을 더 크게 자극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만을 둔 회귀 모델에서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초혼연령(X1, 약 -0.54)이었다. 이는 초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 정부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인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공기관의 설립 시에 비수도권 입지를 선 고려하거나, 비수도권 근로 인구를 확충하는 등, 지방 생활 공간을 개선하여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는다.

4)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34758.html>

3) 환경적 요인: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X6, 약 -0.34)가 올라가면 합계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 보육 시설 수의 무분별한 상승이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근 6년간 총 보육 시설 수는 줄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는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위 해외 사례 분석에서 언급한 보육 시설의 점진적인 국공립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당선인은 위 주제에 대하여 ‘보육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며, 10~15조 원의 예산을 교육에서 보육분야로 넘겨 투입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런 무차별적인 예산 투입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합계 출산율의 감소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계획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고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가족, 자녀 등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는 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 설문조사에 관한 정책적 제언

1. 정책 제언: 부모 교육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이 미래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이 더 많다. 또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집단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가치관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출산율 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출산에 관한 자녀들의 생각을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목표를 세웠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의 분위기 조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출산장려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2. 정책 방향성 제언: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한계점

R을 이용하여 1인 가구 비율(X2)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찾을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가지고 결정한 회귀식에서는 X2의 slope가 예상과 같이 음수로 나왔으나, 전체 변수들을 가지고 결정한 회귀식에서는 양수로 나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수는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상식과 반대되는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본다.

전체 변수들 가운데에는 1인 가구 비율보다 합계출산율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1인 가구 비율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변수들의 힘을 보정하기 위하여 전체 모델에서의 slope가 양으로 나온 것 같다.

또한 2020년 가족 실태 조사 분석을 진행할 때, 특징점들을 찾아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분석할 때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

설문 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다른 데이터들보다 유의미한 column의 수가 적고, 데이터별로 객체가 다르다 보니 column을 추가할 수 없었다.

클러스터링 시에 그룹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출처〉

가족실태조사-통계데이터센터MDIS서비스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1003086&itmDiv=2&nPage=3&itemId=2002&itemNm=%EC%82%AC%ED%9A%8C%EC%9D%BC%EB%B0%98>

여성평균초혼연령 -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1인가구비율 -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

사교육비 - 통계데이터센터 MDIS 서비스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95&itmDiv=1&nPage=3&itemId=2008&itemNm=%EA%B5%90%EC%9C%A1%C2%B7%ED%9B%88%EB%A0%A8/%EB%AC%B8%ED%99%94%C2%B7%EC%97%AC%EA%B0%80>

시군구_합계출산율 -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vw_cd=MT_ZTITLE&list_id=B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인구밀도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07

보육시설 -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51&conn_path=I2

소비자 물가지수 -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J20003&conn_path=I2